

순진과 무지에 주는 선물



전북지부 류미화

짙세기로 영성하게 엮은 가방을 들쳐메고 장마에 헝클어진 눈두렁을 타박 타박 걸어 집으로 향한다. 아무 생각없이 걷다가 같은 동리에 사는 어른께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서 지난 일들을 뇌피속에서 꺼내어 가슴깊이 생각해 본다. “산업보건협회”라는 기관의 문을 처음 두드렸을 때부터 사사로운 일 등등 오늘의 일까지 모두 머리속에서 가슴으로 전이되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사업장 검진. 스케줄에 의해 사업장에 나갔다. 아뿔싸! 이럴수가! 이런 환경에서 일. 세상에! 세상에! 으~응. 범은 어디로 가고 아니 범이전에 사람 됨됨이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술한 감사와 다짐을 했다.

가난한 농사꾼 자식으로나마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게 친절이라는 작은 선물을 주는 자가 되자고 건망증이 심한 나의 가슴에 새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로는 분명히 가능한 것인데 행동으로 행하기는 무척이나 어렵고 힘이 들었다.

기계적인 생활, 아침에 출근, 버스타고, 사업장에 도착, 검진준비, 검진, 다시 버스를 타고 원내로 와 퇴근, 이렇게 되풀이 되는 생활. 처음에 가슴에 새긴 그 선물은 어느새 주인도 모르게 머리의 더러운 한 구석에 박혀있을 뿐이었다. 모든일이 지리한 장마와 후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벌써 타성에 젖어 그런지 짜증스러운 나날의 계속이다. 그 선물을 챙길 일이 생겼다.

오늘도 전과 다름없는 이른 출근. 정주시 변두리에 있는 6명의 근로자가 있는 조그마한 사업장에 가기 위해서이다. 검진 버스는 피음을 내며 아침 공기를 가르며 갔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마치 한쪽의 산수화같은 모습을 보고 어릴때의 추억을 생각하기도 했다. 도착해 보니 검진할 마땅한 장소, 책상, 의자가 부족했다. 그렇지만 검진팀은 검진준비를 했고 검진은 시작됐다. 먼저 접수(신장, 체중), 혈압, 시력, 청력, 병리진찰, X-레이 순으로, 접수계에서 시끝하다.

이유인즉, 접수를 맡은 사람이 근로자에게 묻는다. “입사가 어떻게 되시죠” 근로자 왈 “입사라뇨” 눈은 토끼눈이 되어 말한다. 다시 대화가 시작된다. “회사에 언제 들어 오셨나구요” 대답 “아침예요” 서슴없이 내던지는 그 근로자의 순진과 무지에 우리 모두는 큰 목소리로 웃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의 형제자매 아니 부모를 보는 느낌이 들어 등줄기에 차갑게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또 다른 일이 있다. 체중과 신장을 재는 접수쪽에서 그게 아니구유 이렇게 돌아서유 라는 소리와 함께 폭소가 터진다. 근로자가 신장기(키재는 기구)에 올라 섰는데 눈금이 있는 곳을 보고 서서있는 것이다. 우리 팀은 다시 한번 배를 움켜쥐고 웃었지만 가슴이 몽쿨함을 느꼈다.

순진과 무지의 사이에서 헤메이는 저들을 향해 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 가슴에 새긴 친절이라는 선물이다. 그들의 꾸밈없는 말이나 신장을 재는 모습을 보고 웃은 웃음은 기쁘고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가슴이 찡하고 속이 상한 그러나 상황이 웃음을 자아내게 했을 뿐이다. 손은 거칠고 윤기없는 머리카락을 가진 그들에게 친절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생활속에서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갖고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뒤에서 낮익은 목소리가 “애! 어디가니? 너희 집은 이쪽이잖니”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집은 이쪽인데 나의 몸은 저~만큼 가있었다.